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living resources of young housewives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석 사 이 지 영

교 수 이 정 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 Ji young Lee

Professor : Jeong Woo Lee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young housewives' economy consciousness and economy behavio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aken from 429 housewives between 20's and 35's who have at least one child with their spouse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general trend of the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in living resources was that the level of consciousness is more higher than the level of behavior. Second, the degree of employed wives' economy behavior was more passive than that of house wives' behavior. Third, housewives'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nd number of children. Fourth,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was accounting for 45% of the variance. Influential variables on housewives'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were self esteem, the inside and outside control,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resources. Fifth, out of sub-variables about housewives'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energy resources was relatively at the high level.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득감소와 갑작스런 소비위축현상을 보여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전체가 자원절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중하위층에게 국한된 현상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비량이 다시 증가추세로 들어섰는데, 백화점 매출 또한 올해 평균 12% 정도의 매출신장에 순익은 3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01년 12월 4일자).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생활자원을 소비하는데 있어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생활을 하였다기 보다는 국가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소비량 급증은 저축률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저축률이 지난 8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조선일보, 2001년 12월 13일자).

특히 신세대는 경제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빈곤을 모른채 성장하였고 기존세대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가치의식 및 행동을 나타냄에 따라 풍요로운 소비생활로 자원절약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채 개성주의, 합리주의, 편의주의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있다(이정우 외 7인, 1996).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문선명, 1999) 신세대의 소비생활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절약의식·절약행동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생활자원절약에 관한 연구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동, 자원·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서정희, 1986; 노채영, 1991; 현금희, 1991; 장혜경, 1992; 정진희, 1995)와 소비자의 자원사용 및 처분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강이주, 1989; 정주원, 1993)는 이루어졌으나, 주부의 실질적인 생활자원에 관한 절약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는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자원절약을 위한 관리행동과 행동의 기본이 되는 생활자원 절약의식(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가지원, 자녀용품자원)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자원절약적 가정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비생활 방안 및 올바른 가정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세대 주부의 개념 및 특성

세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권미화, 1994; 정현섭·박영숙, 1994; 황동일, 1994; 박재홍, 1995; 이정우 외 7인, 1996)는 급격한 변동을 야기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 즉 8·15해방, 6·25전쟁과 휴전, 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화추진, 70년대의 경제성장을 통한 대량생산과 소비의 대중화시대를 근거로 하여 구분하는데 특히 신세대란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으로서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젊은 층을 지칭하고 있다. 부연하면 현재 한국의 신세대 주부란 전쟁 후에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왔고, 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되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급변을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연령상으로는 35세 이하, 자녀연령은 대체로 12세 미만이며, 역사적으로는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김미정, 1995).

신세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유를 추구한다. 획일적이고 기계화된 것을 싫어하며, 항상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 또한 개인지향적이어서 자기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미래를 낙관하고 여가생활을 중요시한다. 생각, 태도, 행동이 자유분방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 유익한 것, 편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

다. 또한 일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속에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완성시켜 가려는 높은 성취감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신세대는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인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성장한 세대로 정의하고, 신세대 주부의 연령범위로는 35세이하, 대체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주부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생활자원절약의식 및 관련연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의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식이란 자기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사상, 제도, 가치현상과 같은 심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인 색조인 태도이며, 이는 생물체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을 뜻하는 행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분된다(문순재, 1980). 정인숙(1993)은 소비자의 절약의식이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또한 미래사회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자원고갈을 방지하자는 경제적 이점과 함께 자원에 대한 소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란 일상생활 중 자원의 구매, 사용, 폐기의 생활관리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행동을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여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생각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검절약을 권장해오긴 하였으나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경제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관혼상제, 체면을 중시하는 허례허식 등이 비합리적인 경제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걸치레 문화는 고도의 경제성장 및 서구물질문화와 접목되면서 적절한 소비와 건전한 경제활동보다는 낭비, 사치, 과소비와 같은 부정적 속성을 초래하였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따라서 의식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신의 사적소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구매력을 조절하고

선택의 상황에서 자원의 회소성을 한번 더 인지하여야 한다.

생활자원절약의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 Young(1986)의 연구에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태도와 행동은 근검절약의식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경미(1987)는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에너지소비절약태도 및 에너지소비절약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이 자원을 선택, 사용, 폐기하는 개인의 절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생활자원절약행동 및 관련연구

생활자원절약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원절약의식의 강화와 생활자원절약방안의 보급을 위한 절약교육을 주부들과 가족원에게 실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가족구성원 모두는 자원절약교육을 통해서 첫째, 생활용품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둘째, 제품을 소비 혹은 사용할 때 소요되는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혹은 물과 같은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개선해야하며, 셋째, 재활용행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노영화·강성진, 1992).

생활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에너지 소비절약행동, 자원재활용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을 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자원의 절약행동의 연구로는 Heslop(1981)은 에너지에 관한 태도와 에너지 소비 및 절약행동간의 관계에서 에너지 절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격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숙(1984)은 에너지 위기의식, 에너지자원의 가격이나 공급의 변화, 세계 에너지자원의 부족상태 및 우리

나라 에너지자원 공급 등에 대한 폭넓은 가치관을 지닌 주부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경미(1987)의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 태도와 지식이 소비자 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주부의 태도 및 지식을 변화시킨다면 이들의 에너지 소비절약적 행동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의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이기춘 외 5인(1989)은 의생활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산업의 개발과 유행의 신속성에 의해 의복의 폐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유행이 지났거나 싫증이 난 의복을 그냥 쌓아두는 경향은 미래 사회의 자원고갈 및 자원낭비의 맥락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병미·이재명(1997)은 사장의복의 처리와 환경의 중요성을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처분행동과 앞으로의 사장의복처리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줌, 그대로 보관, 폐기, 고쳐서 재 활용, 헌옷 수집함에 넣는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자원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연구와 가계소비에서 식생활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정립(1996)은 음식물 쓰레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절약추구성이 강한 집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으며, 감량과 재활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은미(1997)는 식품구매가 식사준비, 식사후 뒷처리, 음식폐기물의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장보기 전에 미리 품목을 계획하여 적절한 양을 구입하며, 식품의 신선도나 제조날짜를 확인하여 구매한다면 식품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승신·황은애(1999)는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보다는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소비자 처분행동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강이주·박명희(1990)는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편의주의형은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졌거나 사용에서 오는 권태 때문에 대개의 제품을 영구처분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고, 근면성실형과 생존유지형은 제품의 유지용을 주로 택하며 경우에 따라 일시적 처분방법을 택하지만 영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은 자신의 소비행위가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더 나아가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자원의 소비절약 의식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소비행동을 함으로써 자원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자원을 구매·사용·처리함을 의미한다.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제요인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생활자원절약의식과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와 가계소비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절약에 대한 실천의식이 높다는 결과(월간소비자, 1995)와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다는 연구(홍기남, 1992)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남숙(1984), 백경미(1987), 정인숙(1993), 이기춘 외(1996)의 연구결과는 주부의 연령이 생활자원절약의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절약행동을 보인다는 연구(장혜경, 1992; 변순희, 1994; 송보경, 1994; 이무영, 1994; 이기춘 외, 1996; 강경아, 1998)가 있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절약행동을 보인다는 상반된 연구결과(홍기남, 1992)도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최남숙, 1984; 백경미, 1987; 이무영, 1994; 이승신·황은애, 1999)도 있다.

2)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절약의식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최남숙, 1984)가 있는 반면 절약의식과 교육수준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연구(홍기남, 1992; 두경자, 1999)도 있다. 또한 절약의식과 교육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백경미, 1987; 정인숙, 1993; 이기춘 외, 1996)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다.

생활자원 절약행동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최남숙, 1984; 장혜경, 1992)가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백경미, 1987; 최남숙, 1993; 이무영, 1994; 박운아·이기춘, 1995; 두경자, 1999; 황경혜, 1999)와 교육수준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홍기남, 1992)등이 있다.

3) 주부의 직업유무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생활자원의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홍기남, 1992; 정인숙, 1993; 최남숙, 1993; 두경자, 1999). 직업유무에 따른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차이(홍기남, 1992; 정진희, 1995; 두경자, 1999)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혜경(1992), 최남숙(1993), 이무영(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전업주부일 때 생활자원절약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남편의 직업

생활자원 절약의식·절약행동과 남편의 직업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두경자, 1999). 그러나 정진희(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인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생활자원절약행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직업에 따른 소득정도의 높고 낮음이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5)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생활자원절약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는 듯하다.

자녀수에 따른 생활자원절약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이무영, 1994), 노남숙(1994)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은 가정이 소수인 가정보다는 가정경제상의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 생활전반에 걸쳐 절약정신이 가족구성원들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에너지·수자원·자원절약 및 재활용행동 등을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

6)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최남숙, 1984)가 있는 반면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원절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두경자, 1999)도 있다. 한편 절약의식과 가계소득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홍기남, 1992)도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생활자원 절약행동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생활자원절약행동이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백경미, 1987; 최남숙, 1993; 박운아·이기춘, 1995; 정진희, 1995; 두경자, 1999; 황경혜, 1999)와 생활자원절약행동과 가계소득간에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홍기남, 1992; 이무영, 1994)도 있다.

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지만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임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가정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적인 생활자원 절약의식을 갖고 절약행동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내의통제성

내적통제성과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지만 내적통제성향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Tucker(1980)와 Oskamp(1991)의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이 높은 주부의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기(1984)는 내적인 성향을 지닌 학생이 외재적인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동일성이 보다 높고, 자아수용적이며, 보다 긍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김태현(1998)은 사회활동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내적 귀인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활동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통제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 여겨지며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9) 자원적정인지도

자원은 가정관리체계에서 동기·요구 등과 함께 주요한 투입요소로서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Deacon과 Firebaugh, 1988)이며, 가족시스템의 내적 생산활동으로부터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활용가능한 수단이다.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자원의 절약, 보존, 소비를 적절히 함으로써(최동숙, 1984) 좀더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리나(1994)는 자원적정지각과 가정관리수행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져서 자원을 적정하다고 지각할수록 관리수행수준이 향상됨을 지적하였다.

현재까지는 자원적정인지도와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을 관련시킨 선행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지만, 위에서 제시한 자원적정인지도와 가정관리의식과 행동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원적정인지도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에도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세대 주부의 절약의식 및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2) 신세대 주부의 절약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신세대 주부의 절약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제 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 배경변인(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유무, 남편의 직업, 자녀수, 가계소득,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자원절약의식, 생활자원절약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 관한 척도는 선행연구(백경미, 1987; 안향아, 1993; 노남숙, 1994; 이춘희, 1995; 정진희, 1995; 정혜경, 1999)를 근거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영역은 의생활 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등의 6개 하위영역, 총 6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와 이주희(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은 선행연구(Mckenna, 1985; 지연경, 1991; 최정선, 1998)를 근거로 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통제성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선행연구(Rowland와 동료들, 1985; 조영희, 1991; 김경숙, 1993)를 기초로 하여 주거, 건

강, 시간, 금전, 대인적, 기술·지식, 지역사회 자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내용타당도에 의한 타당도 입증방식과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 산출로 신뢰도를 검증하여 작성하였다. 각 변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2.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

1)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수준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수준은 <표 4>와 같다.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위영역중 에너지자원절약의식과 식생활자원 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생활자원절약의식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인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자원절약의식						생활자원절약행동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체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체
Cronbach' α	.80	.65	.88	.73	.77	.85	.80	.79	.73	.94	.79	.81	.87	.84	.84	.79	.95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녀를 1명 이상 둔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1년 3월 20일~4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미수거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29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Cronbach's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 검정,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법,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를 이용하였다.

이 낮게 나타났다. 부연하면, 에너지자원·식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원절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음식물 쓰레기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매스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의생활자원절약의식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신세대의 소비성향의 특성상 감성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하거나 자기자신을 외적으로 표출하려는 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 심리적 변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

<표 5>에서 보듯이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변인 중에서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다.

신세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전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가정기기 자원, 자녀용품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조사대상자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주부의 연령	20대	68	15.9
		30대	361	84.1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83	42.7
		대졸이상	246	57.3
	주부의 직업유무	무	291	67.8
		유	138	32.2
	남편의 직업	단순·서비스직	47	11.0
		사무직	153	35.7
		전문·관리직	114	26.6
		자영상공업	115	26.8
	자녀수	1명	113	26.3
		2명	281	65.5
		3명	35	8.2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74	17.2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100	23.3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2	14.5	
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75	17.5	
350만원 이상		118	27.5	

〈표 3〉 조사 대상자에 따른 심리적 변인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심 리 적 변 인	자아존중감	상	109(25.9)	3.61	.51
		중	205(48.4)		
		하	110(25.7)		
		합계	424(100)		
	내외통제성	상	112(26.1)	2.27	.43
		중	218(51.5)		
		하	96(22.4)		
		합계	426(100)		
	자원적정인지도	상	118(27.9)	3.37	.45
중		186(44)			
하		119(28.1)			
	합계	423(100)			

※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부연하면, 고졸이하의 주부가 대졸 이상의 주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생

활이 윤택한 어머니들은 과소비에 익숙한 경향(Bae, Hanna, Lindamoud 1993; 박명희, 1996)을 보여 검소, 절약의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표 4〉 생활자원 절약의식수준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생활자원 절약의식	의생활자원	3.94	.64
	식생활자원	4.19	.59
	에너지자원	4.30	.62
	교통·통신자원	4.10	.68
	가정기기자원	4.15	.62
	자녀용품자원	4.11	.63
전 체		4.14	.52

직업유무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의식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용품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의생활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업주부의 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들은 가정관리시 시간상의 제약을 덜 받으므로 생활자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됨으로서

사료되며, 두경자(1999), 이무영(1994)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표 5-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

배경변인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 체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연령	20대	68	3.84		68	4.10		67	4.28		68	4.00		68	4.07		68	3.99		67	4.06		
	30대	359	3.96		359	4.21		359	4.30		358	4.11		361	4.17		360	4.13		352	4.16		
		t	-1.22			-1.25			-.29			-1.11			-1.21			-1.43			-1.2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81	4.05		182	4.28		182	4.41		180	4.23		183	4.28		182	4.25		176	4.26		
	대졸이상	246	3.86		245	4.13		244	4.21		246	4.00		246	4.05		246	4.01		243	4.06		
		t	2.91**			2.47*			3.45**			3.51**			4.02***			3.91***			4.14***		
취업 유무	전업주부	291	3.99		289	4.22		291	4.35		289	4.15		291	4.17		290	4.17		286	4.19		
	취업주부	136	3.84		138	4.13		135	4.18		137	3.97		138	3.98		138	3.98		133	4.04		
		t	2.29*			1.58			2.42*			2.37*			1.51			2.95**			2.58*		
남편 직업	단순서비스직	46	3.99		46	4.22		47	4.37	B	46	4.27	B	47	4.27	B	46	4.16	AB	43	4.23	B	
	사무직	153	3.98		152	4.24		153	4.33	AB	152	4.12	AB	153	4.19	AB	153	4.12	AB	151	4.18	B	
	전문·관리직	114	3.84		114	4.14		114	4.15	A	114	3.93	A	114	4.01	A	114	3.96	A	114	4.01	A	
	자영상공업	114	3.98		115	4.17		112	4.37	B	114	4.15	B	115	4.19	AB	115	4.22	B	111	4.20	B	
		F	1.40			.71			3.11*			3.69*			2.99**			3.45*			3.47*		
자 녀 수	1명	113	3.75	A	112	4.10		112	4.12	A	112	3.95	A	113	4.02	A	113	3.98	A	110	4.00	A	
	2명	279	4.00	B	280	4.22		279	4.35	B	279	4.15	A	281	4.19	AB	280	4.14	AB	274	4.19	B	
	3명	35	4.13	B	35	4.26		35	4.45	B	35	4.16	A	35	4.30	B	35	4.31	B	35	4.28	B	
		F	7.83***			1.95			6.84**			3.49*			3.89*			4.58*			6.82**		
가 계 소 득	200미만	74	4.10	B	73	4.27		74	4.49	B	73	4.32	C	74	4.29	B	73	4.21	B	71	4.30	B	
	200-250미만	98	3.90	AB	100	4.21		99	4.32	B	99	4.21	BC	100	4.17	B	100	4.16	B	97	4.17	B	
	250-300미만	62	4.07	B	61	4.25		62	4.39	B	62	4.14	BC	62	4.23	B	62	4.25	B	61	4.24	B	
	300-350미만	75	3.97	AB	75	4.21		74	4.30	B	74	4.08	B	75	4.20	B	75	4.10	AB	73	4.15	B	
	350이상	118	3.79	A	118	4.10		117	4.11	A	118	3.85	A	118	3.98	A	118	3.94	A	117	3.97	A	
		F	3.72**			1.25			5.21***			7.16***			3.81**			3.66**			5.66***		

* p<.05 ** p<.01 *** p<.001 DMR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표 5-2〉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

배경변인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체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자아 존중감	상	109	4.12	B	109	4.31	B	109	4.46	B	109	4.28	B	109	4.40	B	109	4.32	B	109	4.32	B
	중	203	3.87	A	204	4.17	A	203	4.24	A	202	4.02	A	205	4.09	A	204	4.04	A	197	4.08	A
	하	110	3.89	A	110	4.10	A	109	4.24	A	110	4.02	A	110	4.01	A	110	4.02	A	109	4.06	A
	F	5.96**			3.67*			5.20**			5.76**			13.02**			8.40***			9.93***		
내외 통제성	상	111	3.76	A	112	4.01	A	110	4.09	A	109	3.95	A	112	3.87	A	112	3.89	A	106	3.93	A
	중	218	3.93	B	216	4.19	B	218	4.28	B	218	4.09	A	218	4.17	B	217	4.13	B	215	4.14	B
	하	96	4.17	C	96	4.40	C	96	4.56	C	96	4.27	B	96	4.43	C	96	4.30	C	96	4.37	C
	F	11.12***			11.87***			16.08***			5.81**			22.97***			11.70***			19.69***		
자원 적정 인지도	상	118	4.01		117	4.27		118	4.42	B	118	4.23	B	118	4.25	B	118	4.26	B	117	4.25	B
	중	185	3.90		185	4.17		185	4.26	A	185	4.05	A	186	4.16	B	185	4.12	B	182	4.12	A
	하	118	3.93		119	4.14		117	4.22	A	117	4.03	A	119	4.01	A	119	3.92	A	114	4.05	A
	F	1.17			1.56			3.75*			3.21*			4.83**			9.11***			4.58*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사료된다.

남편직업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생활자원·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용품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가정기기자원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전문관리직인 주부가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보다는 절약을 해야겠다는 절실함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항숙(1997)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 준다.

자녀수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 영역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즉,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자녀용품자원, 가정기기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하면 1명의 자녀를 가진 주부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가 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절약

적 소비경향이 높다는 조항숙(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다수의 가족을 가진 가정이 소수의 가족을 가진 가정보다는 가정경제상 지출할 곳이 많아 생활 전반에 걸쳐 보다 아껴쓰려고 하는 절약정신이 주부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소득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가정기기자원, 의생활자원, 자녀용품자원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하면 낮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구매·사용·재활용·에너지 절약행동을 더 실천해야하기 때문에 절약의식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두경자(1999)의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의식과 행동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는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의생활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모든 영역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주부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잘못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며 적응력이 우수하므로 가정생활을 하는데 보다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신세대 주부의 내외통제성에 따른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가정기기자원, 에너지자원, 식생활자원, 자녀용품자원, 의생활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외적통제성향을 지닌 집단에 비해 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내적통제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에 있어 뚜렷한 확신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내적통제성향을 지닌 사람은 일반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능동적 자세를 지니므로 생활자원절약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생활자원·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용품자원, 가정기기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아(1990)에 의하면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은 주부가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실지 자원의 소유정도보다 사용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의식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3.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

1)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수준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수준은 <표 6>과 같다.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이

<표 6> 생활자원 절약행동수준

변인		평균	표준편차
생활자원 절약행동	의생활자원	3.61	.76
	식생활자원	3.88	.69
	에너지자원	3.97	.76
	교통·통신자원	3.71	.87
	가정기기	3.85	.77
	자녀용품	3.66	.82
전 체		3.79	.65

3.97점으로 가장 높고,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88),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85), 교통·통신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71), 자녀용품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66), 의생활자원(3.61)에 대한 절약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3.79)은 생활자원 절약의식(4.14)에 비해 일반적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생활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연구(손경희외, 1997)에서 의생활자원절약의식(3.56)과 태도(3.39), 식생활자원절약의식(3.60)과 태도(3.28), 주생활자원절약의식(4.01)과 태도(3.32)에서 의식이 행동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노태영 외(1991)의 연구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이 의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행동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용품자원, 에너지자원, 의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의 주부보다 30대의 주부가 절약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절약행동을 기본으로

〈표 7-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행동

배경변인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체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연령	20대	67	3.40		68	3.76		66	3.79		67	3.53		68	3.72		67	3.42		65	3.61	
	30대	359	3.65		360	3.91		357	4.00		358	3.74		360	3.87		359	3.70		349	3.83	
	t	-.24*			-1.44			-2.11*			-1.84			-1.41			-2.40*			-2.52*		
교육 수준	고졸이하	180	3.82		182	4.04		179	4.16		180	4.03		183	4.10		181	3.89		173	4.02	
	대졸이상	246	3.46		246	3.77		244	3.83		245	3.47		245	3.66		245	3.50		241	3.63	
	t	5.00***			4.14***			4.68***			7.11***			6.32***			5.10***			6.58***		
취업 유무	전업주부	290	3.70		290	3.94		288	4.06		287	3.82		290	3.94		289	3.75		282	3.88	
	취업주부	136	3.42		138	3.76		135	3.77		138	3.48		138	3.66		137	3.49		132	3.60	
	t	3.51***			2.61**			3.67***			3.61***			3.56***			2.89**			3.80***		
남편 직업	단순서비스직	46	3.60	AB	47	3.79		47	4.10	B	47	3.97	C	47	4.02	B	47	3.76	B	46	3.89	B
	사무직	152	3.63	AB	152	3.90		151	3.98	AB	152	3.70	B	153	3.88	B	152	3.68	B	149	3.81	B
	전문·관리직	114	3.45	A	114	3.79		113	3.79	A	112	3.40	A	113	3.61	A	113	3.41	A	109	3.59	A
	자영업상공업	114	3.75	B	115	3.99		112	4.08	B	114	3.91	BC	115	3.97	B	114	3.84	B	110	3.94	B
	F	3.18*			1.85			3.33*			8.70***			5.87**			5.88**			6.00**		
자녀 수	1명	113	3.30	A	113	3.65	A	109	3.67	A	112	3.31	A	113	3.50	A	112	3.33	A	109	3.47	A
	2명	278	3.71	B	280	3.95	B	279	4.06	B	279	3.84	B	280	3.96	B	279	3.76	B	271	3.89	B
	3명	35	3.83	B	35	4.10	B	35	4.16	B	34	3.93	B	35	4.11	B	35	3.94	B	34	4.04	B
	F	13.92***			10.20***			12.22***			17.47***			17.86***			14.38***			20.28***		
가계 소득	200미만	74	3.90	C	74	4.02	B	72	4.28	C	72	4.14	C	74	4.12	C	72	3.80	B	71	4.06	C
	200-250미만	97	3.65	B	99	3.86	AB	99	3.98	B	100	3.81	B	100	3.83	B	100	3.73	B	95	3.82	B
	250-300미만	62	3.70	BC	62	4.04	B	62	4.10	BC	62	3.79	B	62	3.97	BC	62	3.77	B	62	3.91	BC
	300-350미만	75	3.64	B	75	3.96	B	74	4.04	BC	74	3.71	B	75	3.94	BC	74	3.78	B	72	3.87	BC
	350이상	118	3.33	A	118	3.69	A	116	3.65	A	117	3.31	A	117	3.57	A	118	3.39	A	114	3.50	A
	F	7.36***			4.22**			9.29***			12.43***			7.18***			4.69**			10.25***		

한 환경관리행동의 연구결과(장혜경, 1992)와 일치하는데, 30세 이후의 주부들은 20대의 주부들보다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절약행동 및 환경관리행동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필요성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원절약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생활자원절약행동이 높게 나타나 두경자(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직업유무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의생활자원, 자녀용품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더 자원절약행동면에서 탁월하다고 한 이무영(1994), 장혜경(1992), 최남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취업주

〈표 7-2〉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

배경변인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교통·통신			가정기기			자녀용품			전체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N	M	D M R
자아 존중감	상	109	3.90	B	109	4.08	B	109	4.14	B	109	3.91	B	109	4.14	B	109	3.90	B	109	4.02	B
	중	203	3.53	A	205	3.83	A	204	3.90	A	203	3.61	A	205	3.78	A	204	3.57	A	200	3.72	A
	하	109	3.44	A	109	3.75	A	105	3.90	A	108	3.65	A	110	3.68	A	109	3.57	A	102	3.68	A
	F	12.01***			7.08**			4.24**			4.66**			11.71***			6.64**			10.08***		
내외 통제성	상	110	3.34	A	112	3.61	A	108	3.69	A	110	3.39	A	111	3.46	A	112	3.34	A	103	3.47	A
	중	218	3.62	B	217	3.92	B	216	4.00	B	217	3.78	B	218	3.89	B	216	3.70	B	214	3.83	B
	하	96	3.91	C	96	4.13	C	96	4.21	C	95	3.90	B	96	4.21	C	95	3.95	C	95	4.06	C
	F	15.80***			16.40***			12.87***			11.01***			28.78***			15.95***			23.78***		
자원 적정 인지도	상	117	3.80	B	118	4.05	B	118	4.14	B	118	3.88	B	117	4.05	C	118	3.89	C	116	3.98	C
	중	185	3.58	A	185	3.89	B	184	3.93	A	183	3.70	AB	186	3.86	B	185	3.69	B	180	3.79	B
	하	118	3.45	A	119	3.71	A	115	3.85	A	118	3.55	A	119	3.61	A	117	3.37	A	112	3.60	A
	F	6.52**			6.98**			4.81**			4.35*			9.96***			12.88***			9.61***		

부의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항상 시간의 부족을 느끼며 자원절약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주부의 취업은 생활자원절약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직업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는데, 하위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통신자원, 자녀용품자원, 가정기기자원, 에너지자원, 의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수록 의생활자원 절약행동, 에너지자원 절약행동, 교통·통신자원 절약행동, 가정기기자원 절약행동, 자녀용품자원 절약행동 및 전체적인 생활자원절약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주부는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절약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원소비절약수준이 높다고 제시한 홍기남(199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자녀수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는데, 하위영역의 모든 영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기기자원, 교통·통신자원, 자녀용품자원,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자원의 절약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양을 가지고 많은 식구들이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절약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 주부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에너지·수자원·자원절약 및 재활용행동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남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계소득에 따른 신세대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의생활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생활이 어려운 집단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주부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의 행동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두경자(1999), 정진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의생활자원, 가정기기 자원, 식생활자원, 자녀용품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언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 행동이 달라지게 되므로(김순옥, 1983), 주부의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보다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가정관리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내외통제성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기기자원, 식생활자원, 자녀용품자원,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통제소재가 가정관리에 필요한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이정우, 1980)고 볼 때, 내적통제성향을 지닌 주부가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용품자원, 가정기기자원, 식생활자원,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언하면 자원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지한 주부집단일수록 생활자원절약행동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았다는 이명숙(1987), 최동숙(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절약의식($\beta = .25$),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의식($\beta = .21$), 자녀용품자원에 대

<표 8> 생활자원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생활자원절약행동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연령	.01	.05	
	주부의 교육수준	-.10	-.09**	
	주부의 직업유무	.02	.02	
	남편 직업	단순서비스직	-.06	-.03
		전문관리직	.07	.05
		자영상공업	.09	.06
	자녀수	.12	.11**	
가계소득	-.01	-.16***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	.01	.01	
	내외통제성	-.10	-.07	
	자원적정인지도	.19	.13***	
생활자원 절약의식	의생활자원	.05	.05	
	식생활자원	.02	.02	
	에너지자원	.26	.25***	
	교통·통신자원	.04	.04	
	가정기기자원	.22	.21***	
자녀용품자원	.20	.20***		
상수		-.08		
R ²		.67		
F Ratio		45.11***		
D-W		2.01		

D-W : Durbin Watson 계수

* 가변인

1. 주부의 직업유무 - 기준 : 취업주부
비교 : 전업주부

2. 남편의 직업 - 기준 : 사무직
비교 : 단순서비스직, 전문관리직, 자영
상공업

한 절약의식($\beta = .20$), 자원적정인지도($\beta = .13$), 자녀수($\beta = .11$), 주부의 교육수준($\beta = -.09$), 가계소득($\beta = -.16$)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곱 변인들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5%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교육과 가계소득은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양세정, 2000)를 가지며, 가족원수의 정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족원수가 증

가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비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가족원수와 가계소득은 절약행동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의 증대와 공급능력이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로 저소득층이 다양하게 소비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해내거나, 자원절약 및 자원 재활용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 양세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리적 변인의 경우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생활자원절약행동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주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원에 대한 인지정도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제반 가정생활에 대하여 만족감 및 성취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활자원절약의식의 하위영역의 경우 에너지자원 절약의식, 가정기기자원 절약의식, 자녀용품자원 절약의식이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절약의식에 따른 절약행동은 세계의 자원이 고갈이라는 환경문제에 관한 매스컴이나 교육을 통해 주부의 실질적인 절약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은 '내가 스스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문항으로 거의 금전적 자원을 들이지 않고 절약하려는 의지가 전체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자녀용품절약의식이 전체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조사대상자가 신세대 주부이므로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부담을 느껴 자녀의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절약하려는 경향이 전체적인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활자원 절약의식이 생활자원절약 행동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과 자원절약캠페인의 전개로 올바른 자원관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자원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자원절약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천방법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을 때는 기존의 생활양식을 깨고 생활자원절약행동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자원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더불어 생활에서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함과 동시에 주부들이 좀 더 쉽게 자원절약교육을 접하고 자원절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에서의 제도적 여건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집단에서 생활자원절약 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에 비해 절약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또는 낭비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서라기 보다는 여유시간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TV등의 대중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한 자원절약교육이 각별히 요구되는 바이다.

3)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자원적정인지도가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뚜렷한 자기주관을 확립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때 자원절약행동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리행동을 최적으로 유발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는 궁극적으로 생활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나 사회교육 담당자, 매스컴 등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에서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자원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는 매스컴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계도가 있는 반면, 다른 영역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자원절약의식과 행동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 자원절약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범시민적 차원의 계도와 홍보가 앞서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영역별 자원절약행동을 개인이나 개별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절약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주부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폭넓은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생활자원절약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70~1980년대에 이루어져 최근 주부들의 생활자원절약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측정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보다 정교하고 표준화된 심층적인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은 있지만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부들의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생활자원을 절약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는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주부들이 생활자원절약을 하는데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강경아(1998). 도시 주부의 그린제품구매행동과 환경보전행동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2) 김미정(1995). 신세대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및 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3) 김병미·이재명(1997).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19-32.
- 4)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의, 식, 주, 경영·구매, 가족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5) 노영화·강성진(1992).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6) 노채영(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여대생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7) 두경자·홍계옥(1998). 주부의 근점절약 의식과 근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91-101.
- 8) _____(1999).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1), 145-156.
- 9)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 한국 근로자 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10) 박윤아·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2), 3-12.
- 11) 변순희(1994).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12) 백경미(1987).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절약행동 및

-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3) 서리나 · 한경미(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68-79.
- 14)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과소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비자.
- 15) 손경희외(1997). 대학생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태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279-289.
- 16) 송영주(1981). 서울시 주부의 저축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7) 양세정(2000). 부부의 인적자본과 가계소비지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6(8), 141-157.
- 18) 이기춘외 5인(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19) _____ · 여정성 · 민현선(1996).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행동 및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27-239.
- 20) 이무영(199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21) 이승신 · 황은애(199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패턴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8), 117-132.
- 22) 이정림(1996). 음식물 쓰레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23) 이정우외 7인(1996).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정경영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4(6), 367-385.
- 24) _____ 외(1997). *최신가정경영학*. 서울 : 수학사.
- 25) 장혜경(1992).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과 자원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26) 정인숙(1993). 소비자의 환경문제의식과 제품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27) 정진희(1995). 가정생활에서의 에너지소비절약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28)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29) 조은미(1997).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가 음식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30) 조향숙(1997). 대학생의 재활용 의식 및 그 영향요인.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31) 최남숙(1984). 가정에너지 소비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32) _____ (1993). 서울시 주부들이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 가정폐기물 분류배출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33) 현금희(1991).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34)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35) 황경혜(1998). 어머니의 환경보전행동이 아동기 자녀의 환경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36) Cook, E. P.(1976). *Psychological androgyny*. N. Y., Pergamon.
- 37) De Young(1986).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Recycling : The Structure of Conservation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8, 435-449.
- 38) Deacon, R.E.,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 Bacon Inc.
- 39) Heslop(1981). "Consciousness in Energy Conservation Behavior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No.3, 299-305.
- 40) Oskamp, S. et al.(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Behavior* 23(4), 494-519.
- 41)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42) Tashchian, R.O. & Slama. M.E.(1985). Survey Data Attitudes and Behaviors Relevant to Energy : Implication for Policy, Marriage and Family Review, 9(1/2).
- 43) Tucker, L.R.(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 The Role of Internal - External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 326-340.
- 44) Tucker, S.M. & Rice A.S.(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